

# 尹대통령 “대학 결정해주면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

### 민생토론회 김영록 지사 건의에 “어느 대학 할지 정해 달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전남으로선 굉장한 선물 받은 것” 전남도 “목포대·순천대 공동 단일 의대 방안 등 정부와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에서 어느 대학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주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도 의대 신설 관련 건의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남권 의대 설립에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말미 김영록 전남지사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올해) 1월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데 전남도 적극 뒷받침하고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감소병원 육성 성과 의료체계 개편 정책을 위해 전남

에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에도 전남도에 오면 그(국립의대 신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국립의대 유치 경쟁을 벌여온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선결 과제로 대학 특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은 각자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며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목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대와 순천대가 공동 단일 의대 설립을 추진한 것을 배제하고 무조건 1개 대학을 특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 1월22일 순천대에서 회동을 갖고 공동으로 단일 의과대학을 신설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공동 의과대학 설립 방안은 김영록 지사가 올해 1월 초 목포대·순천대 관계자와 함께 통합 의대 설립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캐나다 북온타리오 의대를 방

문한 뒤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전제조건을 전남도에 제시함에 따라 향후 전남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가 올해 들어 목포대와 순천대 공동 단일 의과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공동 단일 의대를 1개의 대학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사후 브리핑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의대 신설 요청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답을 주지 않았다” 오늘 전남으로서는 굉장한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명칭만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조건이 불건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목포대·순천대 공동 단일 의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2조6천억 투입 ‘한국형 아우토티반’ 건설

### ●尹대통령 약속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 대선 지역공약...47km 구간 140km 이상 속도 ‘무제한 주행’ 가능 국토부 국가도로망계획 반영 추진·설계속도 상향 용역 5월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원을 약속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47km 구간에 총 사업비 2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하나다.

시속 140km 이상 무제한으로 차량이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티반’ 건설이 목표다. 점차 늘어나는 자동차 동호인과 일본·중국의 마니아층 등을 타깃으로 자동차 문화를 즐기고 새로운 도로 체계도 준비하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고 설계속도 140km/h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편도 2차로 이상 고속국도의 제한 최고속도는 100km/h, 필요시 120km/h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설계속도 상향의 경우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 요청한 뒤, 5월께 착수한다는 계

국토교통부의 구상이다.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초고속도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설계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형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전남 서남권 SOC 新프로젝트’의 하나로 광주-영암 아우토티반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47km 연장의 초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기존 도로(16.3km)를 통해 자연스럽게 목포까지 연결된다. 여기에 대불산단 입주 기업과 근로자,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영암-목포를 잇는 25km 구간을 해상교량(대불산단 대교 사업비 1천900억원)으로 연결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전남도가 광주-영암-목포 초고속도로(아우토티반) 건설 선제 검토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정부 예산에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

### 전남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구간



비로 3억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의 검토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재정기자

## 姜시장 “광주서도 ‘민생토론회’ 열릴 것”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광주에서도 열릴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난 2월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을 투어하고 계시는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생을 직접 듣고 또 정부의 할 일을 내놓는 것,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시장은 “다만 이 과정에 어느 곳 하나 권력을 묶어 공동 개최한 사례는 없었다. 공동 개최는 형평성에 맞지

도,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다”며 “광주에는 광주의 현안이, 전남에는 전남의 현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전남 공동 토론회는 옳지 않다고 말했고 다형히 그 의견을 받아들이며 오늘 대통령께서 전남 민생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광주에서 한 달여 전 요청한 민생토론회가 광주에서부터 열리지 못하고 전남에서 먼저 열렸지만, 현안에 맞게 따로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광주시도 개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 22대 총선 프리즘

### 이낙연, 광산을 예비후보 등록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 후 이 대표는 “중앙

에서 광주를 더 주목하고 전국에서 광주를 더 사랑하게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도덕적, 법적 흠결이 없는 세력으로 새로운미래가 당당하게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는 대안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총선 이후 민주세력의 재편과 재건이 필요하다”며 “새로운미래가 민주세력 재건의 씨앗이 될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성강기자

### 이윤석 “민주 공천 후보 1대1 끝장토론회자”

무소속 이윤석 국회의원 예비후보(목포)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강한 유감과 공천을 받게 된 목포시 지역구 현역 의원에게 산란위 주최 토론과 별도로 1대1 끝장토론회를 제

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다양한 분야별 12개 주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목포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주요 공약은

▲목포·무안통합 ‘목포광역시대 개막’ ▲목포 육해공 외곽순환 친환경 고속도로 건설 ▲목포대의대 설립·글로벌대학 선정 총력 지원 ▲목포시민종합복지센터 설립 등이다. /목포=정해선기자

### 지방의원들, 권향엽 예비후보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에 출마한 권향엽(사진)예비후보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광양읍 MG새마을금고 갤러리에서는 광양시의회 서영배·송재천·신용식·안영현·조현욱 의원, 구례군의회 신상원의원, 곡성군의회 조대현·허재형 의원

들이 참석해 권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할 책임지는 권향엽 예비후보”라며 “앞선 ‘전·현직 지방의원 20인 지지선언’ 및 ‘여성의원 및 여성당원들의 지지선언’과 뜻을 같이하면서 권 예비후보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 예비후보는 5년 동안 한결같이 민주당이 어려울때도 흔들림 없이 당을 지키면서 민주정권 창출에 앞장섰다”며 “당을 깨끗히 지키면서 당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김진수기자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 그에 따른 흡연폐해의 책임.**

**담배소송으로 엄중히 물겠습니다.**

마약과 같은 중독성으로 결국 폐암에 이르게 하는 담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에게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부터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배소송」 관련 보도 [YTN] | 「담배소송」 게시판

h-well 국민건강보험